

종합·해설

▶ 1면 민주 전대서 계속

하지만,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다고 해도 통합 결의의 유효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법원으로 갈 경우, 통합 결의가 무효화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 전당대회에서 통합 결의가 이뤄지면 12일부터 시민통합당 수임위원회와 함께 합동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정강정책·당명

등에 대한 세부 협상을 거쳐 통합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또한, 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통합이 최종 결의되면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은 임시 지도부를 꾸리고 이날 말 또는 1월 초, 통합정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계획이었다.

한편, 이날 예정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된 민주당의 임시 전대는 성원 보고를 시작으로 개회선언, 당대표 인사, 통합 결의 찬반 토론, 통합안 찬반 투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주진보진영을 아울러서 아권통합의 큰 용광로 속에 놓고 하나로 녹여 더 크고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결코 민주당이 없지는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결의를 요구했다.

이후 정장선 사무총장의 당무보고에 이어 통합 결의 찬반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이현주 대구 북구 갑 지역위원장은 반대 입장에, 정범구 의원과 우상호 전 대

변은 찬성 편에 서서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통합안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으며 장내에 진입하려는 일부 당원들을 당직자와 진행요원이 막아서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통합 논의 및 결의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역량 부족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어설픈 진행으로 국민적 감동 견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과반시비’ 野통합투표 대혼란 민주 전대 현장

구타·욕설·고함... 극심한 통합 진통

찬성과 반대파 대치 시작 전부터 몸싸움

민주당이 아권통합을 결의하기 위해 11일 오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전대)는 행사 전부터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행사 내내 진통이 이어졌다.

전대 시작 2시간 전부터 행사장 밖에서 통합 찬성과 반대파 간에 조성된 긴장감은 몸싸움으로 끝내 폭발했다.

몸싸움은 반대파의 한 대의원이 행사장 밖에서 대의원증을 교부하던 30대 초반의 여성 당직자에게 "지문 날인을 왜 받느냐"며 갑자기 뺨을 때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인근에 있던 당직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경호업체 직원들이 폭행한 대의원을 막아서자 다른 반대파 대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20여명이 뒤엉켰다.

이 과정에서 반대파 대의원에겐 머리와 목살을 잡힌 당직자들과 경호업체 직원들이 흥분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동반한 몸싸움이 10여분간 이어

졌다. 여기에 행사 사회자인 김재윤 의원은 행사장 입장 도중 반대파 대의원들에게 뒷덜미를 잡히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반대파 대의원들은 서너 차례 대의원 교부처에 연결된 랜선을 끊는 등 실력 행사를 벌이기도 해 접수 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행사장 밖의 분위기가 과열되자 정장선 사무총장이 나서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직접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반대파는 스티커와 플래카드로 분위기를 다잡기도 했다.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 민주당을 죽인다'라는 스티커가 행사장 밖과 입구 곳곳에 붙여졌고, 행사장 앞 나무엔 '밀실정치, 야합정치 지도부는 떠나라' '선 당내 혁신 후 아권통합', '민주당 해산하는 현 지도부는 자폭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당직자들을 당혹케 하기도 했다.

전대 준비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리허설을 진행했다. 준비위는 2층에 입장한 대의원들이 행사 도중 무대가 설치된 1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일찌감치 12시부터 진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하나만 개방했다.

그러나 전대 시작 전 1000여명의 대의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일부 반대파가 대의원증 없이 진입하려고 시도하며 출입문에서는 고성이나 고함 소리가 벌어지는 등 극도의 혼란이 벌어져 오후 2시로 예정된 개회 시간이 30여분간 늦춰지기도 했다.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던 행사장 밖과 달리 행사장 안에서는 찬성 측 분위기가 대세를 이룬 가운데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당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렸던 만큼 이날 전대는 통합 결의에 대한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로 이어졌다.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주진영이 하나가 돼 정권을 교체하려는 합성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면서 "아권통합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변화의 물결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통합 찬성을 독려했다.

그러나 일부 반대파 대의원 10여명이 소란을 피워 행사 진행이 잠시 끊기기도 했다. 이들은 "중앙당이 불참한 대의원들의 대의원증과 주민등록증을 미리 받아 다른 사람들을 대리 참석시켰다"고 주장하며 20여 분간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반대 토론자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밀실야합이 아니라 당원이 전부 합의를 하는 통합을 이루고 싶다"면서 "이 통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스트리 점등식과 성탄 축하예배를 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11일 교계 인사들과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대형 크리스마스

참석자 기준엔 과반수 충족 투표자 기준엔 48%에 그쳐

민주당이 11일 전당대회에서 아권통합 결의의 표결을 불었으나 효력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반대파들이 이날 통합 결의가 당헌에 규정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당헌상 의결요건은 재적 구성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 찬성이다.

논란의 핵심은 당헌 상의 '출석 구성원'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 전대에는 대의원 1만562명의 과반(5282명)인 5820명이 대의원증을 교부받아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실제 투표에는 48% 가량이인 5081명만이 참석했다. 대의원 전체 수의 과반에 200여명이 모자란

인원이 투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출석 구성원'의 기준을 대의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으로 볼지,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볼지에 따라 의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게 됐다.

당 지도부는 대의원증 교부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결에 필요한 과반 대의원이 전당대회장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전국 각지의 대의원들이 전대장을 찾은 것은 출석의사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며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들의 투표 권리

와 출석 의사를 침해한 것이다. 투표 불참은 기권이지, 불출석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현행 방식의 통합에 반대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반대파는 실제 투표에 참석한 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요건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대장에 있더라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은 출석 구성원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투표가 종료된 후 최종 집계까지 끝냈지만 막판에 이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최고위원과 전대위원장, 전대 준비위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고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선관위는 당헌·당규가 당의 해석사항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반대파들은 투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배가 산으로 가지나 마세요

김진표 원내대표 사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회일인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등원 찬반투표를 실시, 당론을 수렴하기로 했으며 김 원내대표는 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이 전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성급한 결정"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뒤 등원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사퇴를 하려면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특별한 대학, 특별한 서강

아인슈타인?  
찰리 채플린?  
아돌프 히틀러?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미래는 달라진다

대한민국 최고의 서강대 교수진이 자녀의 미래를 책임 지겠습니다.

2012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설명회 :  
2011. 12. 13(화)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8호

IHS 서강대학교